

# 전남도 “인력 확충·안전망 구축, 필수의료정책 속도 낸다”

### 국립 의대 신설·책임의료기관 지정 기준 완화 등 지속 건의 “도민 건강과 생명 최우선 가치 두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전남도가 정부 필수의료 개혁 4대 정책에 발맞춰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대 정원 확대, 지역필수 의사제도 등이 포함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수가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이다.

특히 지방의 필수의료 붕괴를 극복하고 필수·비필수 의료 분야 간 불공정 생태계의 정상화에 중점을 뒀으며, 전국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전남도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적극 공감하고, 의료기관 확충, 취약지역 도민 건강권 강화 등 다양한 필수의료 확보 핵심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지역완결형 의료서비스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3곳, 응급의료기관 36곳을 지정·운영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촌에 간호기숙사 4곳을 건립하고, 매년 20여 명의 간호사 장학생도 선발, 1인 최대 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역의 강화를 위해선 지방의료원(3곳) 집중 육성과 농어촌 보건기관 21곳의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도서·산간 등 필수의료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의료, 자녀 안심 응급 의료, 어르신·이민자 건강서비스도 제공한다.

병원선(2대)과 닥터헬기 운영을 강화하고, 취약지역 소아청소년과와 심야 어린이병원 4곳의 운영을 지원하고, 취약지역 중심으로 산부인과 9곳, 공공심야약국 9곳, 인공신장실 1곳의 운영비도 지원한다.

특히, 필수의료 실현을 위해 ▲국립 의대 신설 확충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제 개선 ▲달빛어린이병원 기준 완화 ▲책임의료기관 요건 완화 ▲공중보건의 배치 확대와 민간병원 당직 허용 등 지역 현안이 적극 반영되도록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전남 치매예방사업. (사진=전남도 제공)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1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발생한 의료계 집단행동 속에서도 도민의 필수의료 제공은 꼭 지켜

져야 한다”며 “도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역 필수의료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용일 기자**



### 자녀 교육부터 인형극단 양성까지 광양제철소, 특색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눈길’

광양제철소(소장 이동렬)이 최근 광양시 가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가(家)·나(NA)·다(多) 인형극단 사업 4기와 다(多)같이 키움에(愛) 5차년도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서영배 광양시 의장, 김동희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 손경화 광양시가족문화센터장과 색동나무 인형극단 단원들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각각 4년차와 5년차를 맞이한 이번 가(家)·나(NA)·다(多) 인형극단 사업과 다(多)같이 키움에(愛)사업은 광양제철소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 아이들이 가정 내 소통의 연결고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언어, 논리수학, 음악 등 아이들의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다문화가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이중언어 영재기초 프로그램’, 가족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는 교육, 행복만 나(NA) △인형극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인형극단 ‘색동나무’ 양성, 만족한 ‘다(多)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주도하는 인형극단인 ‘색동나무’는 이주여성들이 대한민국 사회와 아름답게 융화되어가는 과정을 담은 문화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며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의 모범이 되고 있다.

다(多)같이 키움에(愛) 사업은 광양제철소가 2020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 아이들이 가정 내 소통의 연결고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언어, 논리수학, 음악 등 아이들의 재능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다문화가정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이중언어 영재기초 프로그램’, 가족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서양새마을금고 제48차 정기 총회

#### 김만곤 이사장 “회원 복지 증진·지역사회 이익금 환원”



광주 서양새마을금고(이사장 김만곤)는 최근 호남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730여 명의 회원과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제48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회의 진행은 제1부 성원 보고와 개회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가 있었다. 시상식은 새마

을운동 중앙회장상, 서양새마을금고 이사장상,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상의 순으로 진행됐다.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이 주는 단체상은 김만곤 이사장이 받았고, 서양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주는 우수회원 상은 김기순, 손재하, 이재권, 강경심, 최현미, 장순례 등 6명의 회원이 받았으며, 우수직원 상은 민창원 부장, 고미영 부장, 지중현 차장이 받았다. 남구청장 표창패는 김경순, 성수신 회원이 받았다.

제2부에서는 개회 선언에 이어 2023년도 감사 보고가 있었다.

김만곤 이사장은 “작년 2월 16일에 취임했는데 오늘로써 딱 1년이 됐다. 지난 한 해는 저희 서양 금고뿐만 아니라 전국 1,290개 새마을금고 모두가 가장 힘든 시기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서양새마을금고는 광주·전남 98개 새마을금고 중 자산 3위 금고로서 2024년에는 자산 5,00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산 성장과 목표 순이익의 달성이 되면 배당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에 이익금을 환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선욱 기자**

### 광주시, 난임부부 80명 ‘한방치료비’ 준다…최대 124만원

광주시가 난임부부의 한방 치료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난임여성의 자연 임신을 지원하는 한방 치료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은 약제비와 혈액검사비 등을 1인 최대 124만원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80명이다.

여성은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으로 마지막 보조생식술 시술 후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한다.

신청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광주시한의사회로 문의한 후 난임진단서,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

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한의사회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면 거주지 또는 직장 인근 한방 병·의원(치료기관 37개소)에서 집중치료 3개월, 경과관찰 3개월 등 총 6개월 간 본인의 체질·건강상태에 맞는 한약과 침구치료 등을 받게 된다. **김희면 기자**

한국어문진흥재단 Korea Prose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애늬님께서 재인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았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 박우열

###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